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3월(제6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2019 럭비 월드컵으로 이어진 경사스러운 인연!

## 🔥 오이타-웨일스 MOU 체결 오이타현



왼쪽부터 마크 드레이크포드(Mark Drakeford)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 히로세(広瀬) 오이타현지사

지난 1일, 오이타현이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와 'MOU(우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이타현청에서 진행된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캐롤린 데이비스 주오사카 영국총영사관 총영사, 로빈 워커 웨일스 정부 일본 대표, 고보리 상급 외무 담당관은 직접 현청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자치정부 수반과 히로세 오이타현지사는 ①예술문화 ②스포츠 ③교육·학술 ④관광 ⑤음식 총 5개의 주요 분야를 지정하여 상호 관계 발전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체결식이 열린 3월 1일이 웨일스의 축일 '세인트 데이비드 데이(St David's Day)'인 점에서 오이타현 측은 웨일스의 국화 '리크(수선화와 부추속 채소)'와 '다포딜(수선화)'을 연상하여 오이타현 산 대파와 황수선화를 준비해 맞이했는데요, 마크 자치정부 수반 역시 수선화 부토니아(신라의 턱시도 옷깃을 장식하는 꽃)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 웨일스 국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이타와 웨일스는 2019 럭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 MOU가 체결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우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쩍 봄이 다가온 요즘! 사이클링은 어떠세요?

## 🔥 사이키시 사이클링 맵 사이키시



사이키(佐伯)시 관광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사이키시의 사이클링 코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오이타현 사이키시 사이클링 맵'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이클링 맵에는 바다·산 코스, 사이키 일주 코스 등 자전거를 타고 사이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코스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초보와 중급자를 위한 평지 코스부터, 상급자를 위한 경사가 들쭉날쭉한 코스까지 다양한 레벨이 마련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별로는 휴게 공간이나 관광 스폿이 달라 각 코스에만 있는 특별한 시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없는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렌탈 자전거, 스포츠 바이크, 전기 자전거, 2인용 자전거를 대여해 드리는 사이키에서 이번 봄에는 사이클링을 즐겨 보시면 어떨까요?



하늘 공원(좌), 혼조(本匠) 물레방아(우)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3월(제6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일본 안데르센의 업적을 기리고 미래로 잇는 곳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구스정

IC 교차로에서 일본 모모타로(桃太郎) 설화에 등장하는 새빨간 거대 오니(鬼, 일본 도깨비)를, 도로 휴게소(SA)에서 모모타로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오이타현 중서부에 위치한 구스정(玖珠町)이다. 별칭 ‘동화의 마을(童話の里)’인 이곳은 ‘일본의 안데르센’이라 불리는 교육자이자 동화구연가인 ‘구루시마 다케히코(久留島武彦)’의 출생지로도 알려져 있다. 1874년 구스정에서 태어난 구루시마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구연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교훈’을 동화에 담아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들려주었다. ‘대머리’ 등의 우스꽝스러운 키워드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구연을 일생을 바쳐 전국 각지에서 선보이다 생을 마감한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구스정에서는 1950년부터 매년 5월 5일에 ‘일본 동화제(日本童話祭)’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길이 60m의 거대 고이노보리(こいのぼり, 어린이날 종이나 천으로 만든 잉어를 깃발처럼 장대에 다는 것)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 동화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정작 구스정이 왜 동화의 마을이라 불리는지, 구루시마는 누구인지는 잊혀져 갔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초대 기념관장이 구루시마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그 결실은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개관(2017)’이라는 형태로 맺어지게 되었다.



〈① 구루시마 다케히코 문화상 & 북 월〉

현재 기념관장은 한국인으로, 사전에 취재를 위해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린 덕에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다. 기념관 내부는 나무 기둥과 마루 인테리어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총 7개의 전시실 ‘방’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 기념품점 등을 갖추어 작지만 알차게 구성돼있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구루시마의 그림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준다. 그 옆의 〈북 월〉에는 구루시마가 쓴 소설 680편 중 일부를 전시하고 있으며, 그중 10편은 동화책으로 출판되었다고 한다.



〈② 동화비가 보이는 방〉에서 보이는 동화비

기념관 내부의 벽과 천장 곳곳에는 아동 교육을 위한 구루시마의 명언 12개가 써 있어 구루시마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동화비가 보이는 방〉은 한 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구루시마 동화구연 활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동화비(1950)를 한눈에 볼 수도 있다. 높이 7m의 거대한 동화비 아래에는 3만 개의 돌멩이가 묻혀 있는데, 당시 구루시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전국의 아이들이 돌멩이에 꿈과 이름을 적어 보낸 것이라고 한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3월(제6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③ 구루시마 선생을 배우는 방〉

구루시마의 생애와 활동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는 전시실이다. 그가 작곡한 동요를 들을 수 있는 모니터와 실제 사용했던 모자, 여권의 복사본 등이 있어 보다 생생하게 구루시마를 알 수 있다. 전시품 중에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원하는 에도 시대 향토 인형 ‘이누하리코(사진 오른쪽)’도 있는데, 구루시마는 이누하리코가 자신의 이념인 ‘모모타로 주의(중족이 달라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자는 정신)’과 딱 맞다고 생각하여 심볼로 사용했다고 한다.



〈⑤ 이야기 방〉

구루시마가 쓴 동화 10편과 구스정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구연동화로 재현하여 들려주는 방이다. 동화를 읽어 주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녹음 당시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 매우 실감 나게 이야기를 들려 주고, 동화책의 삽화를 영상으로 보여 주어 더욱 생생하게 동화를 즐길 수 있다. 구루시마의 실제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그의 목소리가 궁금하다면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느긋하게 동화를 들여보길 추천한다.



〈⑦ 세계를 여행하는 방〉

구루시마의 일본 전국 활동을 소개하는 〈⑥ 일본을 여행하는 방〉에서 작은 미닫이문을 열고 나오면 항해를 테마로 만든 전시실로 연결된다. 이곳에서는 구루시마가 세계 각국에서 찍은 사진과 수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실 바닥에는 1908년 도쿄 아사히 신문에 실렸던 ‘세계 일주 여행 루트’의 확대본이 깔려 있다. 당시 나라와 도시 이름은 발음대로 표기하여 지금과는 전혀 다른데, ‘布哇’라 쓰고 ‘ふあい’라 읽는 곳은 어디일지 추측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며 잠시 여행을 떠나 보자.



〈⑨ 만남의 방〉에 있는 구루시마가 제자에게 선물한 방울

구루시마와 교류가 있던 인물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그중 작은 방울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거대한 장식품 ‘레이고안의 도레(鈴語庵の土鈴)’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장식품은 구루시마의 제자 ‘아난 테쓰로(阿南哲郎)’가 취미로 모은 1,150개의 흙방울을 길게 줄로 엮어 방에 장식했던 것으로, 바람이 불어 여러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구루시마가 ‘이곳은 방울(鈴)이 이야기(語)하는 방(庵)이다’ 하여 ‘레이고안의 도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3월(제6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기획 전시> 니시지마 이사오 작품전

<⑧ 구루시마 선생 인연의 방>에서는 구루시마의 작품 및 애장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시즌 별로 다양한 기획 전시도 개최한다. 내가 방문했을 때에는 후쿠오카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니시지마 이사오(西島伊三雄) 작품전(1월 14일~3월 27일)’을 개최하고 있었다. 그는 후쿠오카 대표 인스턴트 라멘 ‘우마캣짱(うまかつちゃん)’의 일러스트를 그리고 라멘의 이름을 지어준 인물로, 구루시마와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85년에 구스정에서 열렸던 동화제를 보고 ‘좋은 행사다’라고 생각하여 모모타로를 비롯한 동화 속 등장인물과 거대 고이노보리, 구스의 상징인 기리카부산, 동화비가 그려진 그림을 선물했다고 한다.

구스는 한때 ‘과거’로서 잊혀질 뻔했던 인물을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노력하는 멋진 곳이다. 언젠가 구스에 온다면 기념관과 이어 소개할 구스의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久留島武彦記念館)

- 주소 : 玖珠郡玖珠町森855 (〒879-4404)  
(JR 분고모리역에서 차로 5분)
- 문의 전화 : 0973-73-9200(일본어 대응)
- 관람 시간 : 09:30~16:30(매주 월요일 휴관)
- 입장료 : 구스정 주민 150엔 / 그 외 300엔  
\* 만 18세 미만 무료입장
- 사이트 <http://kurushimatakehiko.com/>

🔥 구스에 오시면 여기서도 가 보세요! 🍵

### ① 기리카부 산 切株山



기리카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구스정

옛날 옛적에 거인이 하늘까지 뻗어있던 녹나무를 잘랐더니 그루터기(기리카부)모양의 산이 되었다는 전설의 장소!

### ② 분고모리 기관고 공원 豊後森機関庫公園



55년 동안 나가사키와 가라쓰에서 활약한 증기 기관차

규슈 유일 현존하는 라운드 하우스(선형 차고지)와 실물 증기 기관차가 있는 역사적 공간! 기관차고 박물관도 운영 중!

### ③ 도로 휴게소 '동화의 마을 구스' 道の駅童話の里くす



구스 명물 '해적 가린토(かりんとう)'

구루시마가 중세시대 해적 '무라카미 수군'의 후손인 점에 착안하여 이름 붙여진 달콤 바삭한 명물 과자도 판매 중!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3월(제6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14화

<특집> 노지와 술 

\* 본 만화는  
개인의 경험담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여행에서 사온  
일본주를 자주 마시고있다.



예전에는 맥주·발포주를 고집했는데  
입맛이 좀 변한 듯.. 암튼,



술을 하지않는 이는 이런 나를 보고  
'알중아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주가" 인절로 해주세요...

알중이들아! 맥주만 계속 마시다가는  
통풍에 걸려버린다고! 가뭄 와인,  
청주, 데킬라, 마셔줘야해!!  
위스키도



그런데 사실 어렸을 적의 나는  
도대체 술을 왜먹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말 싫어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귀밝이술'조차  
끔찍이 싫어서 매번 너무 괴로웠음...  
(\*음력 1월 15일에 남녀노소 마시는술)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술을 먹지 않겠다  
결심했던 노지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는데...

